# 마음으로 지은 것은 마음으로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전자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면서 자기의 잠재의식에 들어 있던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잠재의식에 항상 잠재해 있고 그게 아파서 울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질 않고 지워지질 않아서 문제는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 도리를 지금 공부하면서 알았다면 그것조차 지워 버릴 것을, 그래서 또 다시 인연을 짓지 말 것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맞아야 하고, 밥 세 끼니 얻어먹는 건 마찬가지건만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주정을 받아야 하고 맞아야 하고 애들도 꼼짝 못 하고 이렇게 모두 살아야 하나. 이런 인생은 살아 뭣 하나.' 하고 양잿물을 갖다 놓고 몇 번 죽으려고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연이 돼 가지곤 거기에 또 뭉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 오늘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둘은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소외당하는 부인은 바깥에서 들으면 그냥 화가 치밀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남편이 들어오면 막 그냥 자기를 때리고 그러거든요. 아들도 들어와서는 괜히 투정을 하고 괜히 심통을 부리고 팽개치고 나가고, 그렇게 어머니를 못살게 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좌악 하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예전에 남편이었고 당신 지금 남편이 당신의 부인이었을 때 몇 곱쟁이 때렸고, 지금 아들인 소를 몇 곱쟁이 때렸어. 그렇게 아프게 때렸고 못 살게 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당신이 이렇게 맞는 거고, 속상하고 불이 일어나고 살 수가 없고 구박을 받는데 아직 백분지 일도 받지를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 저 사람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세 번을 다시 죽었다 태어나야 다 갚는다는 거라. 이건 정말 너무했죠?

그랬는데 그 소릴 듣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 번 인연을 안 맺고 그 고생을 안 합니까?" 하면서 믿고 기댔습니다, 그 스님한테. "면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안의 자부처를 찾으면서 '모든 것은 내 탓이니 그저 모든 것을 당신께서, 제가 열 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으니 열 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받겠습니다.' 하고선 내 탓으로 돌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주인공에 다 맡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라도 맡기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지 말고 한 번 때리걸랑 더 때려 달라는 식으로다가 그저 존경하고 섬겨라. 그런다면 세 번 죽어서 다시 인연이 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 당대에 없어질 수도 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네 스스로서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냥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선 그때서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때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맞고, 아들이 팽개치고 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염원을 하고, 먹을 걸 갖다 주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나가서 사 먹고 들어와도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 못 가서 아들과 남편이 차츰차츰 착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가 그렇게 때린 업이 녹느라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합니다. 당신네들이 지어 놓은 것들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녹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누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 가기도 바쁜데 왜 거길 보느냐 이겁니다. 왜 거길 봅니까? 그거부터 배워야지, 만약에 그거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이건 만날 작은 그릇에 엎드러져서 그 그릇에서 만날 헤어나질 못해요. 그게 습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면서 보지 말고 안에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은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물건을 생산을 해서 내도록 자비를 가져라 이 소립니다. 물건이 잘못되고 녹이 슬었으면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좀 더 좋게 해서 내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다 넣으면 언젠가는 다시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거는 이 접시의 쪽이 떨어졌어!" 이럭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쪽이 떨어졌으면 쪽이 안 떨어지게 용광로에 넣어라 이겁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금 쪽이 안 떨어진 것이 나오도록만 용광로에 넣고 말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지금 내가 바빠서 죽겠는데, 지금 다시 자꾸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생산을 해내야 될 텐데, 생산하는 거는 나중이라도 자꾸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스스로 넣게 되면 스스로 용광로에서 새로 또 발견이 되면 '아, 그때는 그렇더니 새로이 이게 나오는구나!' 또 달리 보일 때가 있고 달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겁니다. 물건이 다르니까,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다는 얘깁니다. 고정되게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행을 하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한 가지를 보고 고정되게 말을 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일 년 후에 다르고 몇 달 후에 달라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그 인연을 어떻게 끊어야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써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써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기복으로 나가지 말라, 바깥에서 이름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 **여러분은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한 번은.**
> **그러니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호국 불교에 대한 불자로서의 마음**

**질문** 6월은 호국의 달이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우리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호국 불교의 역사를 이어받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는 지금 바로 앉아서 세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 살림살이, 또 앉아서 호국 불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산 대사나 사명 대사가 그렇게 호국 불교를 가지고 천 명이나 참, 이천 명이나 모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쳤고, 임진왜란 때 그렇게 쳤고 또 그 후에 사명 대사가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해서 참, 그 뭡니까. 저, 태자들을 다 데려왔고 이랬듯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몸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이 돼서 무전도 다니고 모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무전, 뭐, 컴퓨터, 탐지기, 응? 그 뭡니까, 영사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몸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껑충 뛰었다고.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바둥바둥하고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던 이 시절이 벌써 능큼 뛰었단 얘깁니다. 그 후에 소총,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던 때도 벌써 건너뛰었다 이겁니다. 대포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도 뛰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앉아서 호국 불교를 안 하면은, 서서는 호국 불교가 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그 도리를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삼천 년 전에 가르쳐 오신 그 뜻입니다. 여직껏 삼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렇게 그 공부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를 앉혀 놓고도 얘길 했고, 길바닥에 앉혀 놓고도 얘길 했고, 둘을 놓고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이 바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그걸 보고도 그냥 말로만 '아, 부처님 불법은 이렇대, 이렇대.'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화엄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이 바로 진짜 불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깨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그와 더불어 오신통을 바로 내가 굴릴 수 있어야 하고, 오신통에 그 경(經)도 다 들어갑니다. 오신통을 내가 굴릴 수 있어야지, 내가 오신통에 말린다면 안 됩니다. 그건 도가 아니요, 그건 자유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뭐 조금 보이는 게 있고, 무슨 뭐 들리는 게 좀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아이구! 나는 이거 참 장땡이야!' 이렇게 하실 게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 들어간다면, 그것을 위주하고 그것이 도라고 잘못 알고 들어간다면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가 돼! 들끓는 귀신의 노예가 된다면 미친 사람이지 그게 성한 사람입니까? 지금도 자기가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아파도 어쩔 수가 없고, 속상해도 어쩔 수가 없고, 가난해도 어쩔 수가 없고, 우환이 닥쳐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노예죠! 자유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왜? 옷을 벗게 되면 그냥 있다 '내가 벗게 됐구나' 하면은 벗고 가면 되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인간으로 진화돼서 창조가 됐으면 다시금 이것을 벗고 다시 마음의 공부를, 즉 말하자면 마음을 깨친다면 이 인간의 모습 이 자체도 억겁을 거치면서 윤회로 끄달리진 않는다 이겁니다. 자유스럽게 사는 거다. 어디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와. 여기만 혹성이, 이것만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지구만 우리 집이 아니라구요. 전체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도량!

'내 도량' 하면 전체, 우주 전체가 다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땅이요, 내 자리요,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 저 산천초목은 저렇게 조화를 이루고 저 물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흘러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움죽거리고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흘러 도는 것밖엔 없다. 흘러 돌고 이렇게 돌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자유스럽게 흘러 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안다면 더불어 같이 이 세상에 모두 살아나가는 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가 이익이 아니냐, 그리고 세세생생에 이익이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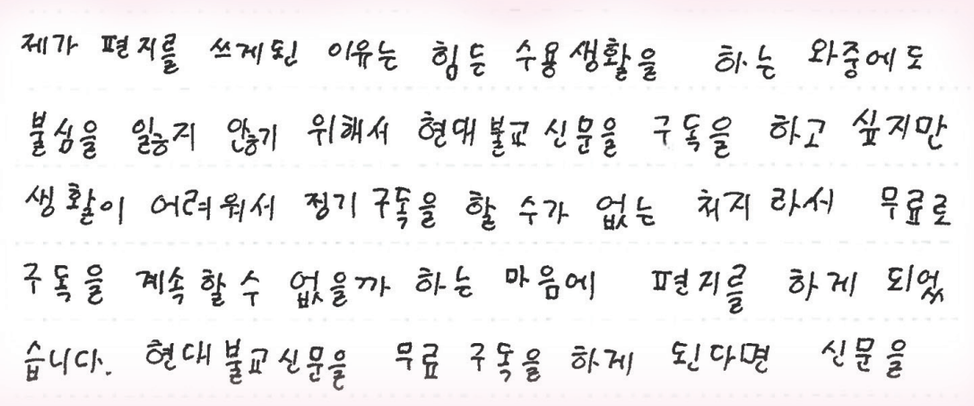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